

2025학년도 제4회 인권공모전 출품작 -참가자별 작품 안내-

【목 차】

1. 솟품
2. 포스터
3. 슬로건
4. 에세이

【**쇼폼 부문**】

(참가작 수: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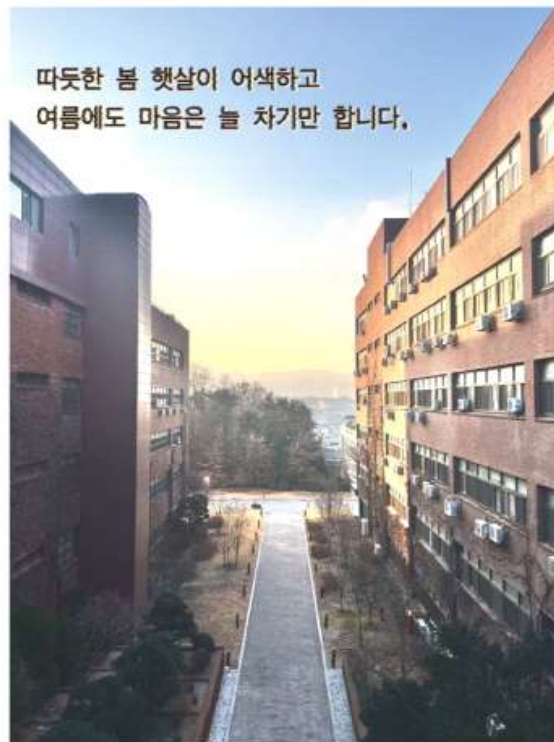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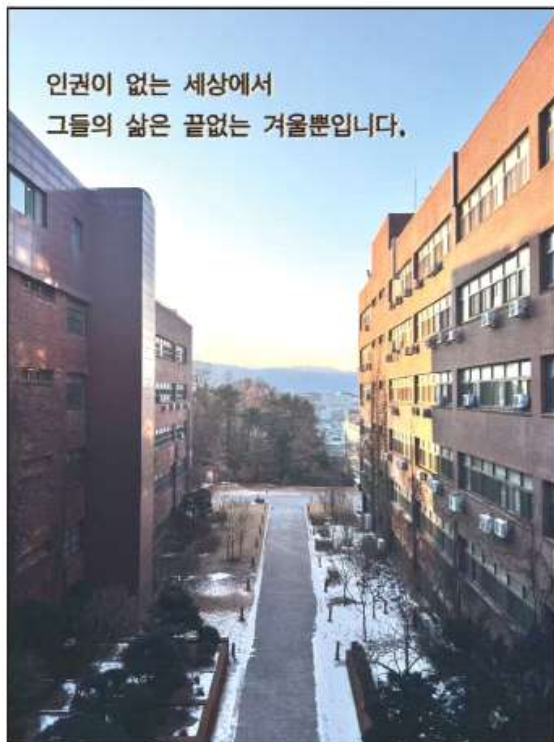
1. 이름: 강대범

2. 작품 제목: 바야흐로 한림은, 인권의 봄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한림대학교의 가을 - 겨울 - 봄 - 여름의 계절적 흐름에 따라 소외되어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의 인권의 봄을 염원 및 독려하고자 제작함	-사진의 미세한 계절의 변화처럼 인권에 대한 미세한 인식 변화가 인권의 겨울을 인권의 봄으로 크게 변화시킴을 내포함

4. 출품작



【포스터 부문】

(참가작 수: 18개)

1. 이름: 최라온
2. 작품 제목: 기후 위기, 당신의 집은 안전한가요?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기후 위기로 거주지를 잃은 이재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텐트를 치고 있는 모습을 뉴스에서 보고, 피해를 입은 가정의 아이의 시선에서 가정하여 작품을 제작하게 됨	-기후 피해로 갈 곳 없는 이재민들에게 관심을 주어 대안이 마련되고, 누구라도 이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고자 함

4. 출품작



1. 이름: 임건혁
2. 작품 제목: 지구온난화, 아직도 원인을 모르십니까?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제작함 -이로 인해 거주권 침해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으로 인해 생명권 침해까지 야기함	-끊임없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바닷물에 잠겨가는 삶의 터전(공장 건물)을 대비 시켜, 인간간의 이기적인 활동이 결국 전 세계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현실을 보여주고자 함

4. 출품작



1. 이름: 차유미(최우수상)
2. 작품 제목: 서로 다른 인종, 함께 키워가는 하나의 인권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외국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던 경험을 토대로 대학교 내에도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데 차별을 받거나, 인권을 침해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제작함</p> <p>-흙의 색깔은 다양하지만 섞여도 하나의 새싹을 키워내듯, 서로 다르더라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인권이 적용되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음</p>	<p>-인권이란 서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함</p> <p>-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하나의 올바른 인권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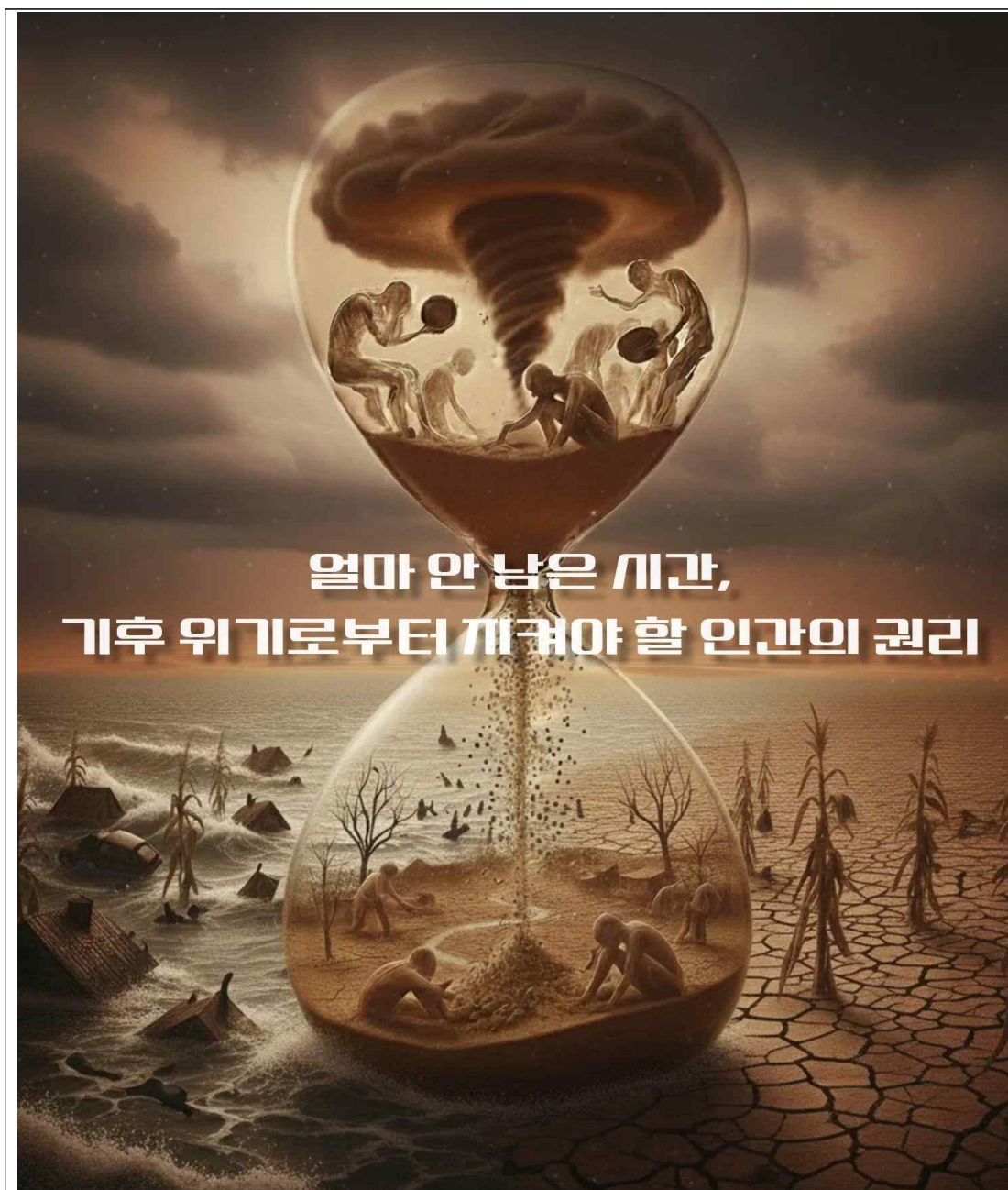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강지은
2. 작품 제목: 기후와 권리, 모래시계 속에서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기후 위기가 인류의 식량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함 -흘러내리는 모래시계를 통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과 기후 위기로 인해 무너져가는 생존기반을 시각적으로 보여줌	-이 작품은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동시에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식량권마저 위태롭게 한다는 사실을 전달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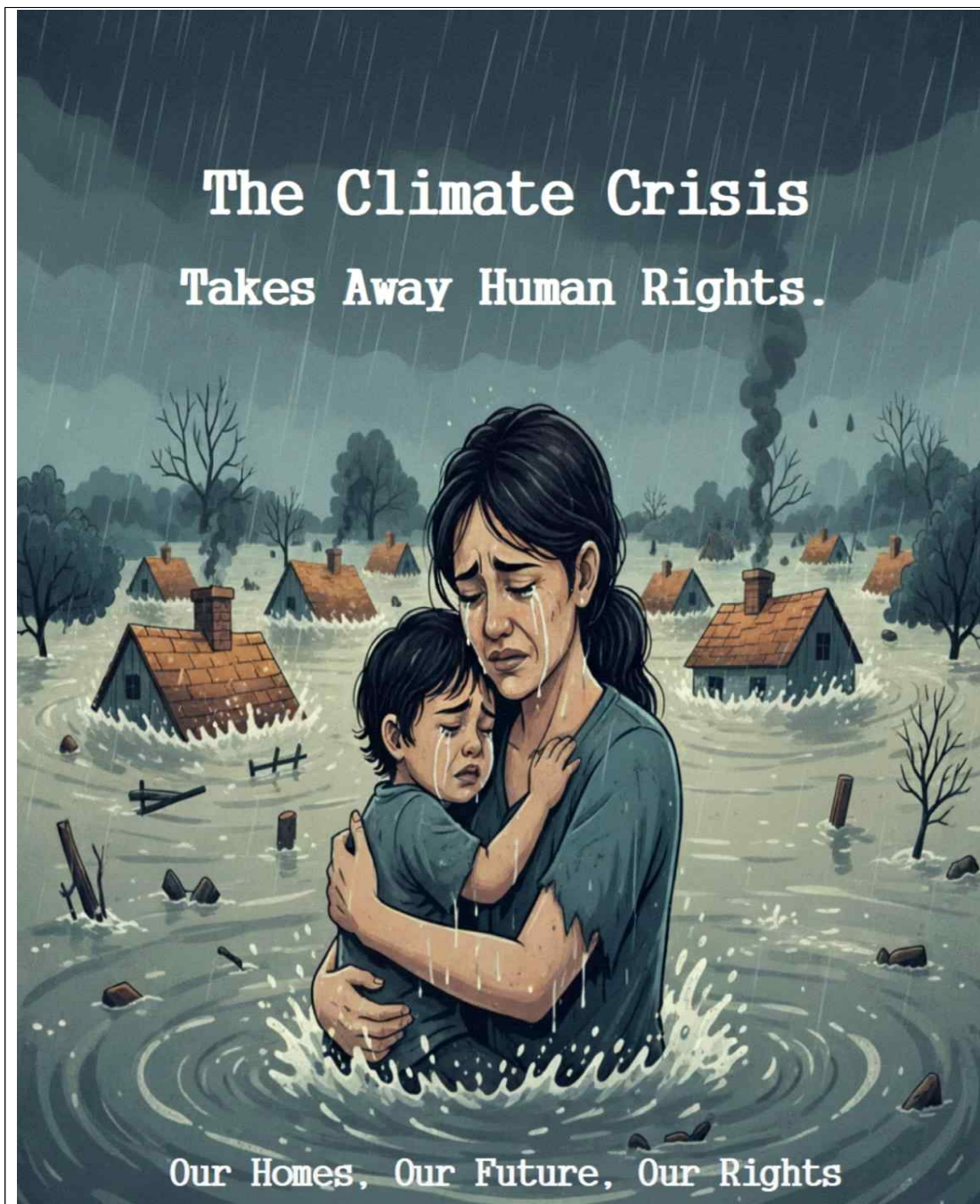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신현경
2. 작품 제목: 우리의 권리가 가라앉는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기후 위기로 인해 터전을 잃은 난민을 알리고 싶었음	-잃은 것은 단지 집이라는 물체가 아닌, 우리의 고향과 미래, 그리고 우리의 권리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었음

4. 출품작



1. 이름: 성아현
2. 작품 제목: 차별 없는 모두의 캠퍼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교내에서 외국인 학생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문제 삼아 제작함.</p> <p>-색안경과 3D안경원리를 활용해 편견과 차별이 세상을 왜곡되게 보이게 한다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함</p> <p>-하단의 “Your Campus, Our Campus” 문구는 서로 다른 존재들이 각자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상단의 “우리가 낀안경의 이름은 차별입니다”라는 문구는 차별의안경을 벗고 모두가 평등하게 어울리는 캠퍼스를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p>	<p>-이 포스터는 대학 캠퍼스 내 인권 침해와 외국 학생 차별 문제를 시각적으로 표현함</p> <p>-여러 색으로 겹쳐진 인물은 인종, 종교, 출신 지역 등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상징하며, 안경을 통해 바라본 모습이 단일 색으로만 보이도록 표현함으로써 ‘차별’이라는 렌즈가 세상을 한쪽 시선으로만 인식하게 만드는 현실을 보여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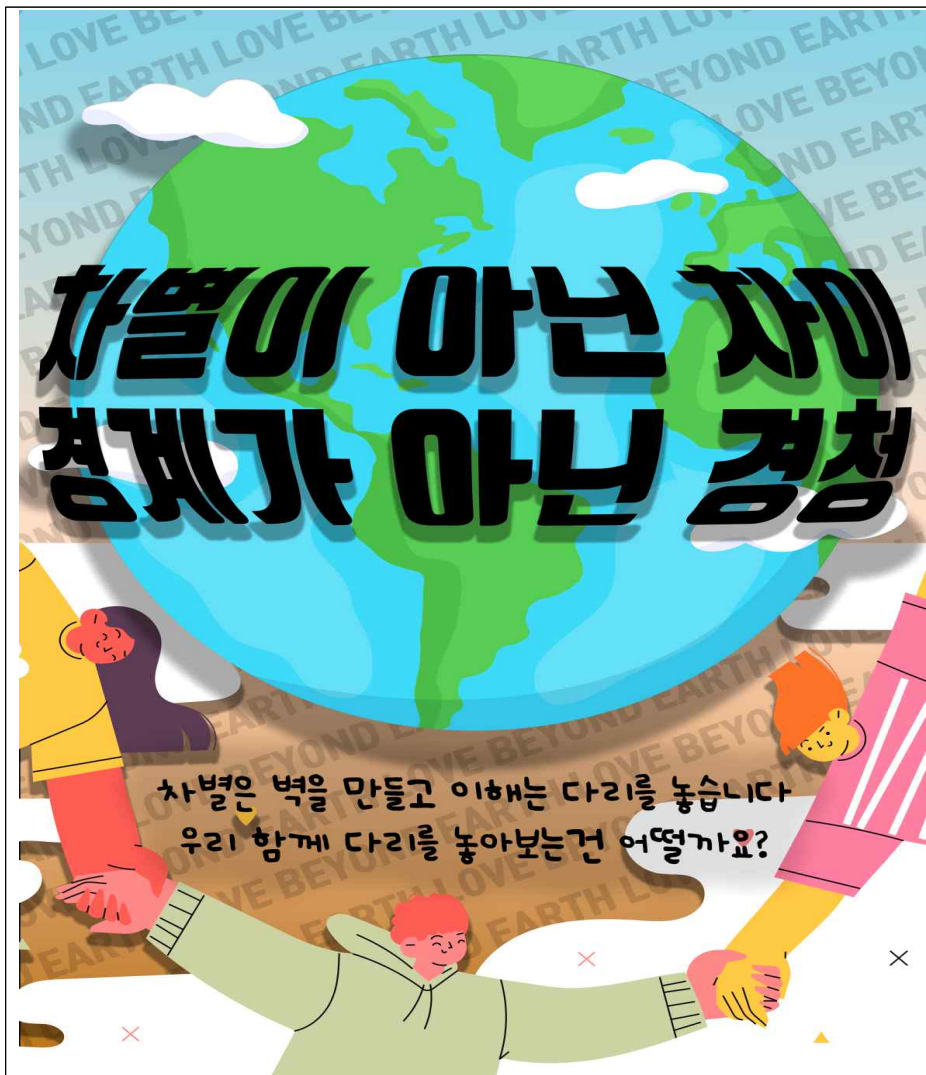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정재영
2. 작품 제목: 다름을 배우고 다리를 놓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을 줄이고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생각을 바꾸고, 이해와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가치를 포스터의 주제로 다룸</p>	<p>-이 작품은 경청 → 이해 → 사랑의 과정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를 담아 “차별이 아닌 차이, 경계가 아닌 경청”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함 -시각적으로는 지구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서로 지탱하며 지구를 받치는 모습으로 표현했고, 배경에는 “Love Beyond Earth”를 반복해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함 -마지막으로 “차별은 벽을 만들고 이해는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 함께 다리를 놓아 보는건 어떨까요?”라는 문구로 참여와 공감을 촉구함</p>

4. 출품작



1. 이름: 박주연(장려상)
2. 작품 제목: 손가락이 휘두른 폭력, 마음에 새겨집니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함 -디지털 익명성 뒤에 가해 행동과 피해자의 고통을 표현하여 사이버 폭력의 현실적 피해를 직관적으로 표현하고자 함	-이 작품은 온라인상의 작은 행동이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익명 뒤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폭력과 그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관객이 이를 성찰하도록 의도함

4. 출품작



1. 이름: 전평지(장려상)
2. 작품 제목: '익명, 인격의 빈칸'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 나타나는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무분별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우리가 외면하지 말아야 할 현실을 마주하게 하고자 함</p>	<p>-이 작품은 익명 뒤에 숨은 욕설과 비난이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닌 심각한 폭력임을 경고함 -모든 언어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학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인권 친화적 캠퍼스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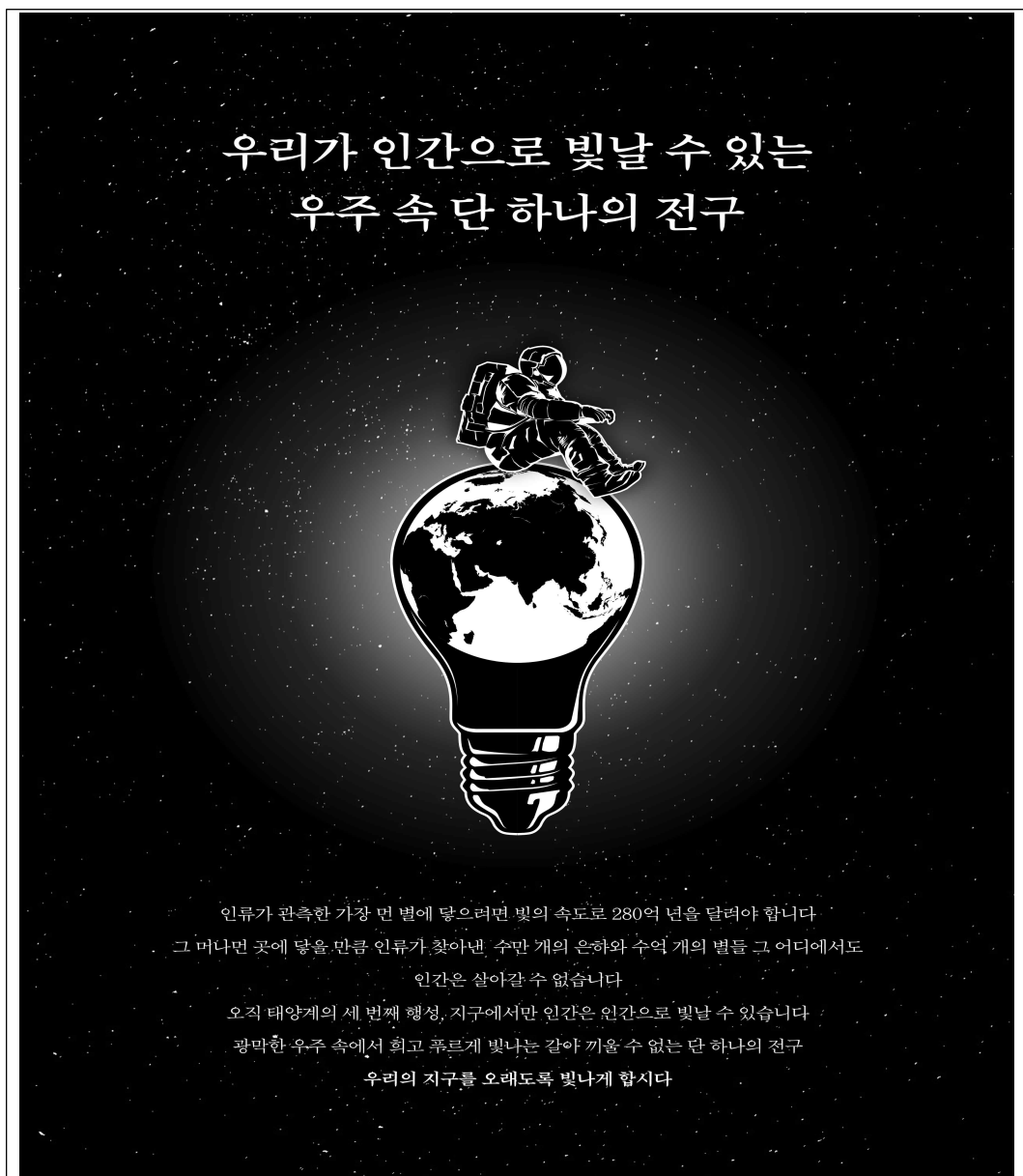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한주오
2. 작품 제목: 우리가 인간으로 빛날 수 있는 우주 속 단 하나의 전구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제임스웹 망원경이 포착한 원시 별 ‘에아렌달’의 빛을 계기로, 인류가 머물 수 있는 곳은 결국 지구뿐임을 깨달음 -이에 천문학적 시각을 접목해 기후위기가 생명권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임을 알리고자 포스터를 제작함	-80억 인류가 지구를 무한한 권리처럼 사용하지만, 지구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넘어서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생명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음 -이 작품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터전인 지구의 소중함을 알리고, 환경보호를 통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4. 출품작



1. 인적사항: 이유진(장려상)
2. 작품 제목: 차별과 폭력 없는 배움의 공간,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캠퍼스는 배움의 공간이지만 성희롱, 차별, 권력 남용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이 작품은 대학을 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한 배움의 공간으로 만들자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하고자 함</p>	<p>-대학 내 인권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이며, 모든 구성원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캠퍼스를 만들어 갈 책임이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음 -포스터는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는 모습을 시각화하여, 개인의 용기뿐 아니라 연대와 협력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함 -이를 통해 건강한 인권의식을 가진 대학문화를 만드는데 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연대가 필요함을 전달하고자 함</p>

4. 출품작



- 1. 이름: 유정민
- 2. 작품 제목: 전, 인권입니다.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이 포스터는 유머러스한 요소를 가미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를 중심으로 '임팩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작함	-이 작품은 모든 사람이 '전 인권'의 주체임을 강조하며,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성희롱, 언어폭력, 직장내 괴롭힘 같은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함

4. 출품작



1. 이름: 이나영(장려상)
2. 작품 제목: 사람도 상처 납니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우리는 각자 살아온 환경과 가치관은 다르지만 누구나 지켜야 할 도덕과 인권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함</p> <p>-그러나, 직장에서의 언어폭력, 위계에 의한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같은 인권 침해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남기기도 함</p> <p>-이러한 현실을 보며 "과일도 함부로 찌르지 않는데, 왜 사람에게는 쉽게 상처를 내는가?"라는 물음을 가지고 작품을 제작함</p>	<p>-사람을 과일에 비유하여, 사소한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표현함</p> <p>-본 작품을 통해 인권의 본질인 존중과 배려를 환기시키고자 함</p>

4. 출품작



1. 이름: 안홍재
2. 작품 제목: 현실과 가짜의 경계를 허무는 딥페이크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딥페이크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들을 보며, AI가 휴대폰 속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작품으로 표현하고자 함	-딥페이크가 현실과 허구의 경계를 허물며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을 작품에 담았음 -기술의 매력과 동시에 범죄에 취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그것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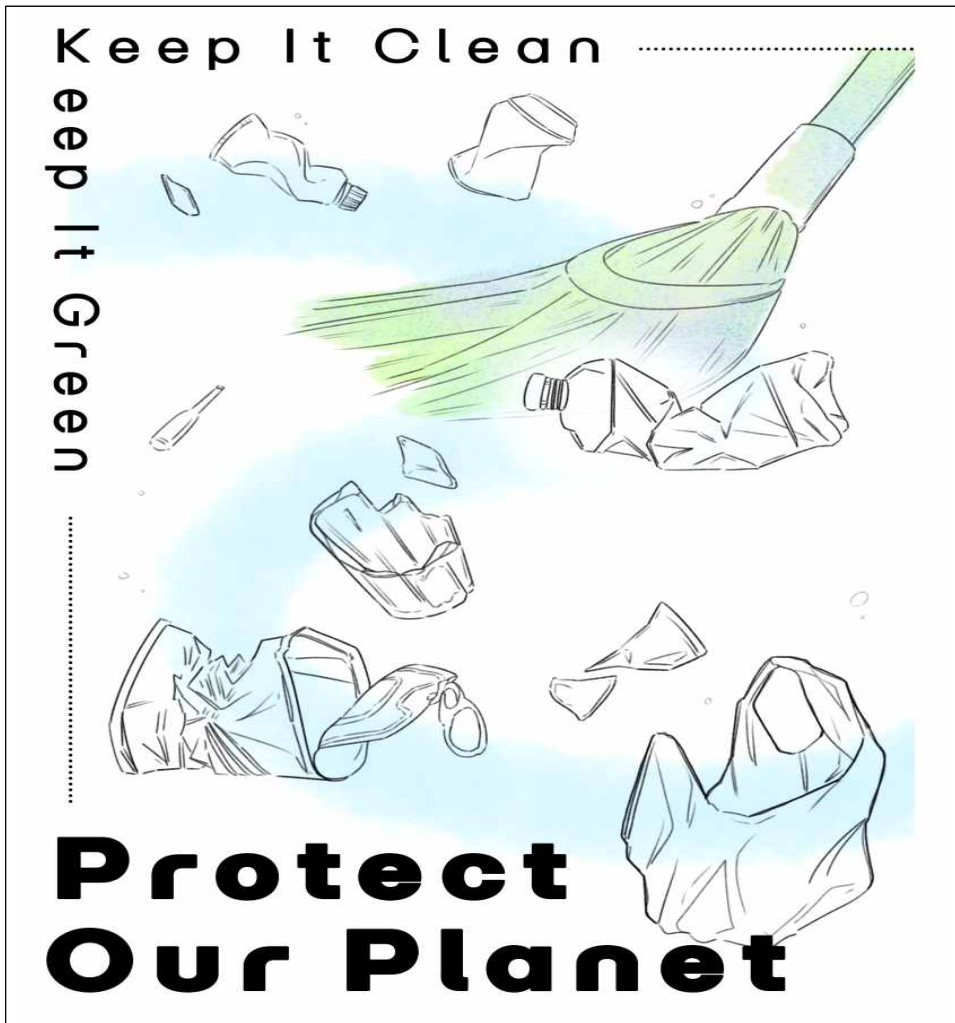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김명빈
2. 작품 제목: 푸른 흔적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교내에서 플라스틱과 재활용 쓰레기가 뒤섞인 모습을 자주 목격하며, 작은 부주의가 환경 파괴로 이어진다는 문제의식을 느낌</p> <p>-작품에서는 일상 속 쓰레기와 쓰레기를 쓸어내는 빗자루 이미지를 통해, 우리의 작은 실천(청소, 분리배출, 쓰레기 줄이기 등)이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음</p> <p>-푸른색 라인은 깨끗한 환경을 향한 길을, 점선은 그 길 위에 남겨진 우리의 발자국을 상징하며, 깨끗한 지구를 지키는 일이 현재와 미래 세대 모두의 권리임을 강조하고자 함</p>	<p>-“Keep It Clean Keep It Green”처럼 깨끗함과 환경 보존이 떼어놓을 수 없는 가치를 전하고 싶었음</p> <p>-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하나도 지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강조함</p>

4. 출품작



1. 이름: 김태경
2. 작품 제목: 한림의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습니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한림대학교는 인종, 국적,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공부하는 열린 공간이랑 점을 강조하고 싶었음	-인종, 국적, 성별과 상관없이 우리는 인재의 숲, 한림에서 함께 걸어감

4. 출품작



1. 이름: 진다정, 류윤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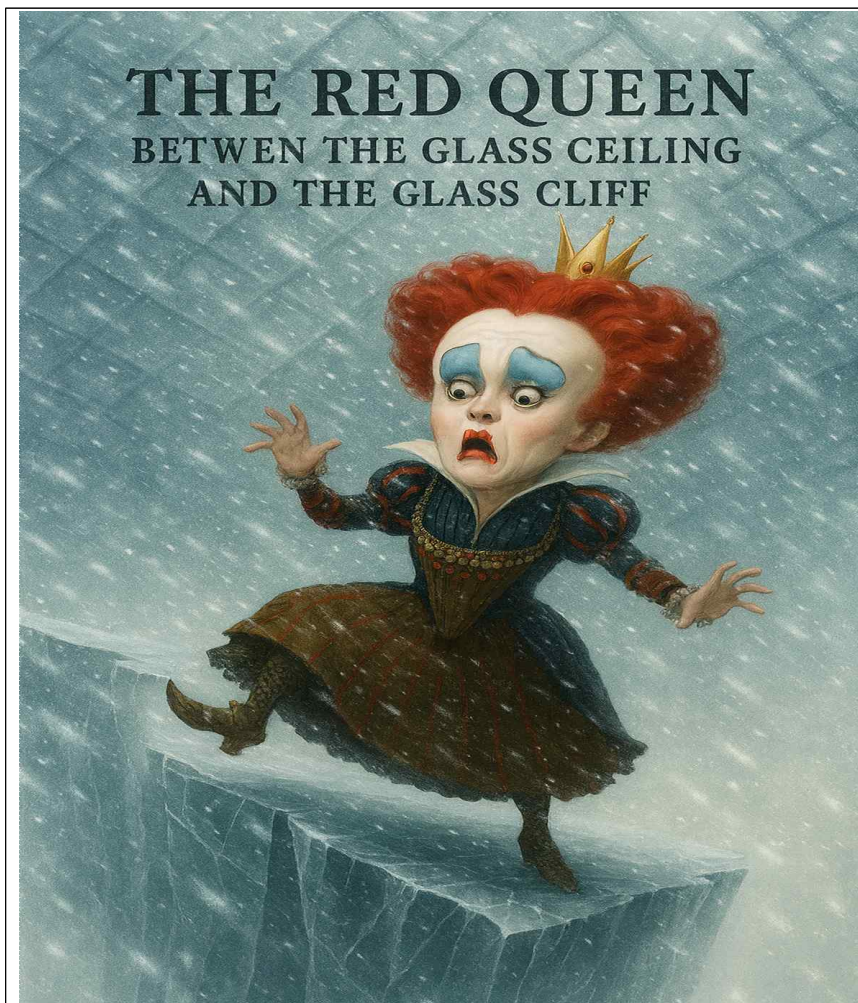
2. 작품 제목

유리 절벽과 유리 천장 사이의 붉은 여왕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유리 절벽과 유리 천장 사이의 붉은 여왕」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겪는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음</p> <p>-여성은 능력과 성과와 무관하게 경력 발전이 막히거나, 드물게 주어지는 기회조차 위험하고 부담스러운 위치에 놓이며, 기존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과 자기희생을 강요받음</p> <p>-이러한 현실은 유리천장, 유리절벽, 붉은여왕 효과라는 세가지 개념을 통해 설명되며, 특히 한국 사회의 성별 임금 격차가 문제의 현실성을 반영함</p>	<p>-이 작품을 통해 여성의 성장이 개인적 역량만으로 보장되지 않음을 전하고 싶었음</p> <p>-여성들은 유리천장과 유리절벽, 붉은여왕 효과 속에서 끊임없이 능력을 증명해야 하지만,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존재함</p> <p>-작품을 통해 성별에 따른 기회의 비대칭성을 드러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자 함</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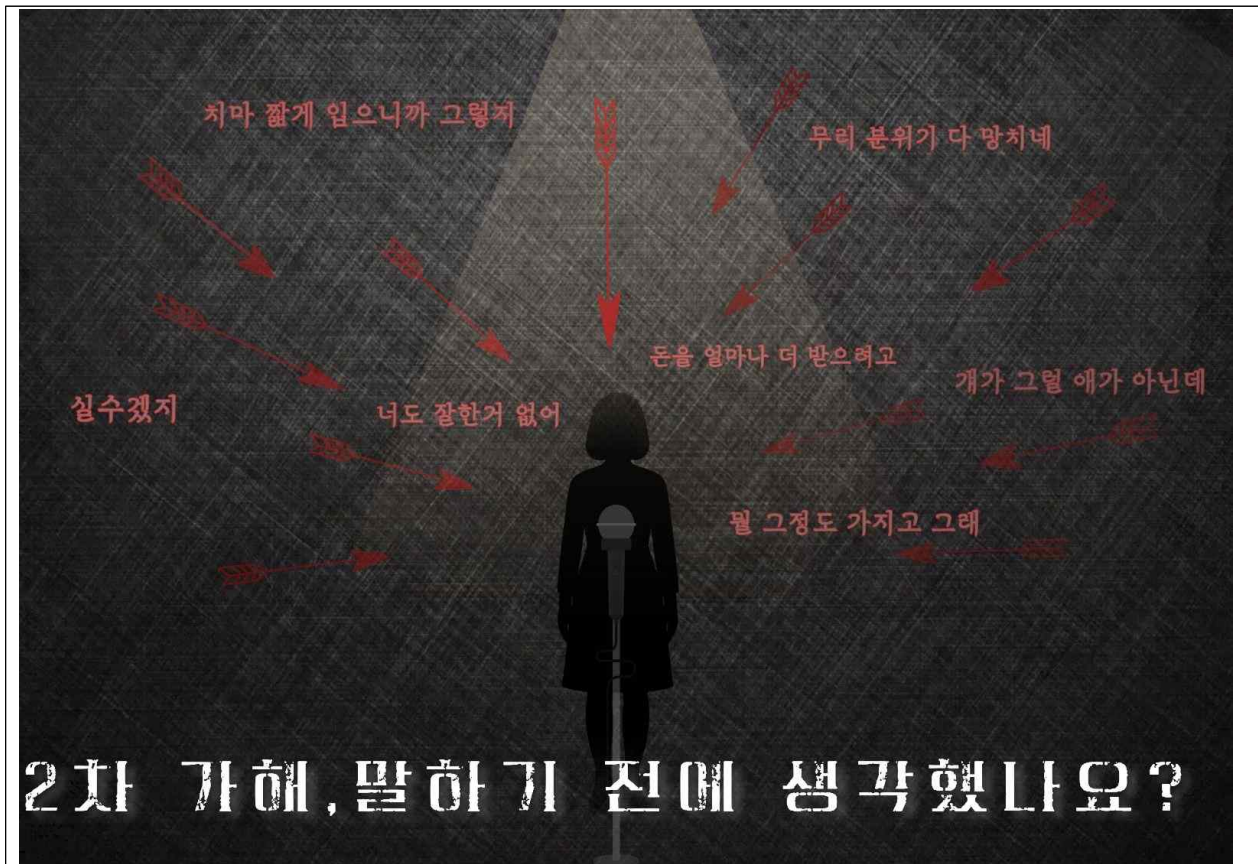
4. 출품작



1. 이름: 김신비, 박혜진
2. 작품 제목: 웃음 뒤에 숨은 화살, 2차 가해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2차 가해 역시 명백한 가해라는 사실을 사회에 알리고자 이 포스터를 제작함</p> <p>-2차 가해는 무심코 한말이나 의심 어린 시선이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심각성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음</p> <p>-이러한 현실을 알리며, “내가 무심코 한말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수있다”는 경각심을 전하고자 함</p>	<p>-관람자가 스스로 행동을 돌아보고 바꾸도록 유도하고자 하였음</p> <p>-2차 가해는 일상 속 무심한 말과 태도에서도 쉽게 발생하므로, 누구나 가볍게 한말로 2차가 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싶었음</p>

4. 출품작



【슬로건 부문】

(참가작 수: 9개)

1. 이름: 김주은
2. 작품 제목: 뜨거운 지구, 꺼져가는 권리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생명권, 건강권, 주거권, 식량권 등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는 점을 알리고자 기획함</p> <p>-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환경 문제와 인권의 연결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슬로건을 구성함</p>	<p>-기후 위기를 "인권의 위기"로 인식할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 모두가 함께 행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p>

4. 출품작

- 1) 더운 지구, 식어가는 인권
- 2) 온도는 오르고, 권리는 내려가고
- 3) 기후위기, 인권의 경고음

1. 이름: 정주연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인권은 목소리를 내야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함</p> <p>-상처 극복을 위해 자기사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피해자가 언젠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함</p>	<p>-첫 번째 슬로건은 인권이 허상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임을 전하고자 함</p> <p>-두 세 번째 슬로건은 상처를 받아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 온전한 '나'로서 스스로를 사랑하게 될꺼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p>

4. 출품작

- 1) 사라질 거품이 아닌, 울려 퍼질 인권의 노래
- 2) 봉오리진 마음 속, 너로서 피어오를 자그마한 꽃
- 3) 깊은 숲, 따스한 햇살이 너를 비출 그 날까지

1. 이름: 현예준
2. 작품 제목: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인권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인간으로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만들어 나가며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제작함</p>	<p>-첫 번째 슬로건은 익명성이라고 숨어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고 어디서든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전달하고자 함 -두 번째 슬로건은 인권을 침해 당했을 경우 인권센터등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 언제나 권리를 외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함 -세 번째는 출신, 종교 등 차별적 사고를 멀리하자는 의미로 발음의 유사성을 활용해 전달하고자함</p>

4. 출품작

- 1) 익명성 뒤 어둠, 반드시 밝혀질 당신의 존재
- 2) 누구나 외칠 수 있는 권리, 인권 - 침묵 대신 외쳐봐요
- 3) 차별, 저 멀리 차버려!

1. 이름: 김민서
2. 작품 제목: 가벼움 속에 숨은 무게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대학 공동체 내 인권침해와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사소한 언행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음을 은유적·직설적 문구로 표현함</p> <p>-작품은 학생들에게 존중과 배려가 공동체의 기본 가치임을 성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p>	<p>-이 작품은 사소한 말과 행동도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함</p> <p>-또한, 대학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실천할 때 안전하고 건강한 캠퍼스가 만들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함</p>

4. 출품작

- 1) 벽돌 하나의 균열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 2) 가벼운 장난, 무거운 상처
- 3) 웃으면 던진 말, 눈물을 만든다.

1. 이름: 이지혜(우수상)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슬로건은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 침해 문제의 본질을 ‘침묵’으로 규정한다. 피해자들의 침묵은 가해자에게 면죄부가 되고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악순환을 야기함</p> <p>-이를 깨는 가장 강력한 힘은 피해자의 용기 있는 목소리이며, 이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음</p>	<p>-개인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시작하며,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음을 전달하고자 함</p> <p>-이 슬로건이 인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하고 존중하는 대학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함</p>

4. 출품작

- 1) 침묵을 깨는 당신의 목소리, 우리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2) 침묵의 벽을 허무는 목소리, 당신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 3) 한 사람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울림이 됩니다.

1. 이름: 함토옥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작품은 기후 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위기이자 인권의 붕괴로 바라봄 지구는 점점 더 뜨거워지지만, 우리는 서로에 대한 공감과 책임에서는 점점 멀어지고 있음 -외국인 노동자의 죽음, 침수된 마을, 떠내려가는 편의점, 고통속에 터전을 떠나는 사람들은 기후 재난이 지금 이순간에도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줌</p>	<p>-뜨거워지는 지구 속에서 인간성은 점점 식어가고, 기후 변화는 우리의 생존권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깨끗한 공기, 안전한 식수, 안정된 주거 같은 기본 권리조차 흔들리고 있음 -이 작품은 공감과 연대로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모두가 존중받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촉구함</p>

4. 출품작

- 1) 뜨거운 행성, 식어가는 인간성
- 2) 기후 위기, 인간의 삶을 침수하다
- 3) 변하는 기후, 무너지는 삶의 권리

1. 이름: 선민재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대학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애학생들이 소외와 차별 속에서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음</p> <p>-청각학을 전공하는 제 시선에서 차별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배움의 본질을 흔드는 문제였고, 그래서 “차별은 배움의 소리를 지운다”라는 메시지를 중심에 두고 작품을 기획함</p> <p>-이를 통해 장애 차별을 사회적 인권 문제로 드러내고,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혐오표현 등 대학 내 다양한 인권 침해와 연결시켜 대학이 안전하고 포용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함</p> <p>-결국 저는 “장애는 한계가 아니며, 차별이야말로 진짜 한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p>	<p>-저는 이 슬로건들을 통해 대학 내 장애 차별과 인권 침해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하였음</p> <p>-장애를 이유로 한 농담이나 배제, 무시는 존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조했고, 성희롱·성폭력, 온라인 혐오표현, 위계적 괴롭힘 등 다양한 인권 침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환기하고 싶었음</p> <p>-또한 침묵과 외면 속에서 장애 학생의 목소리와 권리가 사라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대학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연대하는 공간이어야 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p>

4. 출품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다름은 차별이 아니라 함께의 시작이다. 2) 모두의 목소리가 모일 때 배움은 완성된다. 3) 장벽이 없는 캠퍼스, 존중이 울려 퍼진다.
--

1. 이름: 홍예원(장려상)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인터넷과 SNS를 통해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도, 익명성을 악용한 타인 비방과 성적 모욕 등 다양한 인권침해가 발생한다는 점에 주목함</p> <p>-피해자들이 1차 가해를 넘어 2차 가해까지 겪는 현실을 알리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작품을 제작함</p>	<p>-온라인에서 익명성을 악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괴롭히는 행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전하고 싶었음</p> <p>-이러한 행동은 결국 책임으로 돌아오며, 법적·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경고하며, 인권의식과 책임감을 스스로 일깨우는 사전 예방의 메시지를 담고자 함</p>

4. 출품작

<p>1) 익명 뒤에 숨은 당신, 악명이 되어 돌아옵니다.</p> <p>2) 익명 뒤에 숨은 당신의 악명은 피해자의 숨을 끊습니다.</p> <p>3) 익명과 악명,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p>
--

1. 이름: 정다운
2. 작품 제목: 존중이 만드는 안전한 캠퍼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학교 안에서 성희롱·성폭력, 위계적 문화, 익명 게시판에서의 혐오 표현 등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담고 싶었음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대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슬로건을 제작함	-세 가지 슬로건을 통해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음 -침묵이 동의로 오해되지 않고, 선후배 관계와 익명 뒤에서도 존중이 중요함을 담았음. 이 슬로건이 우리학교가 더 건강하고 인권이 지켜지는 공간으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램

4. 출품작

- 1) 침묵은 동의 아닌 거절 존중은 선택 아닌 필수
- 2) 선후배는 있어도, 위아래는 없습니다
- 3) 익명일 수록 더 빛나는 건 존중

【에세이 부문】

(참가작 수: 14개)

1. 이름: 신성열(장려상)
2. 작품 제목: 기후 위기,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그림자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사무실의 더위, 에어컨 없는 동아리방, 폭우 속을 지키던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기후위기가 곧 권리의 문제임을 느낌 -이러한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학습권, 노동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음	-기후 위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권리를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임. 사회 전체가 인권의 시선으로 기후위기를 바라봐야 함

4. 출품작

기후 위기,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그림자

26도의 사무실

어느 해 무더웠던 여름, 대학 본부에서 “냉방 온도 26도 유지”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 나는 기후 위기가 단지 추상적인 환경 문제가 아님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전력난과 탄소 배출 절감이라는 명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사람들의 체온이 뒤섞이며, 머리가 짓눌리는 듯한 고통이 이어졌다. 창문을 열어도 바깥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선풍기는 그저 뜨거운 바람을 이리저리 옮겨놓을 뿐이었다. 건강을 해쳐가며 더위를 버티는 것이 마치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시민의 의무’처럼 미화되는 순간, 나는 문득 내 건강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기후 변화가 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교정 위에 드리운 그림자

이 경험은 교직원으로서 내가 일상에서 기후 위기를 인권 문제로 바라보게 된 첫걸음이었다. 특히 여름마다 반복되는 학생들의 고통은 이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준다. 예산 부족과 행정 절차의 벽에 막혀, 에어컨 하나 없는 동아리방에서 땀에 젖어 활동하는 학생들, 시험을 준비하던 학생이 부채질을 멈추지 못하는 얼굴에는 피곤함과 답답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들의 반복된 개선 요구는 단순한 편의의 투정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지켜져야 할 ‘학습권’과 ‘생활권’이었다.

폭우가 쏟아질 때의 풍경은 또 다른 권리의 문제를 드러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편안하게 비를 피하고 있을 때, 시설 관리 직원들은 주말에도 캠퍼스로 나와 빗물과 싸운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들의 손은 멈추지 않았다. 빗물이 새는 건물을 보수하고, 침수 위험이 있는 배수로를 점검하며 몇 시간씩 현장을 오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기후 위기가 곧 노동권의 문제임을 절실히 깨달았다. 안전하게 일할 권리, 충분히 쉴 권리가 기후 재난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다. 이처럼 기후 위기는 교내의 작은 공간에서도 개인의 건강, 학습, 노동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었다.

불평등하게 다가오는 위기

대학 안에서 겪은 장면들은 결국 더 큰 사회의 축소판이었다. 기후 변화의 영향은 모두에게 닥치지만, 그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 폭염, 폭우, 가뭄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나는 2022년 서울 수도권 집중호우 뉴스를 아직도 기억한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로 저지대와 반지하 주택이 순식간에 침수되었고, 사망자 대부분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 안전하게 거주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다. 같은 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는 미호강 임시 제방이 무너져 14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됐다. 관리 부실과 행정의 안일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국외도 다르지 않다. <가디언>은 2022년 여름, 20일 넘게 이어진 북유럽 폭염으로 노인들이 선풍기조차 없이 뜨거운 밤을 견뎌야 했다고 보도했다.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생존권이 위협받는 인권의 문제였다.

폭염 속 사무실의 직원들, 찜통 같은 동아리방에서 활동하는 학생들, 폭우가 내리면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시설 관리 직원들처럼, 사회 전체에서도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권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다. 기후 위기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강도와 방식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권리를 지키는 우리의 몫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나는 기후 위기 대응책을 마련할 때 단순히 환경 보호만의 관점이 아니라 ‘인권 보호’ 역시 높은 우선 가치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후 위기 대응의 이름으로 특정 집단의 권리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도, 윤리적이지도 않다. 모든 시민이 기후 위기 시대에도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 정의다.

이는 거대한 정책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냉방 온도를 1도 올릴 때, 그 1도가 누군가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야 한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교직원으로서 나는 앞으로도 이 문제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체감할 것이다. 때로는 개인적인 불편을 감수하고, 때로는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 공동체 안에서 기후 위기를 인권의 문제로 바라볼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한 권리를 지키는 과정이다.

그리고 나는 바란다. 언젠가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대학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치는 기후 위기를 인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를. 그 순간이야말로 교육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가장 큰 변화이자 희망일 것이다.

1. 이름: 서수민
2. 작품 제목: 기후변화와 환자의 인권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간호학과 병원 실습과 몽골에서의 의료 봉사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환자들의 인권 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함	-'기후변화', '환자', '인권' 이라는 단어가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과 단어를 놓고 보면 엄청난 연관이 있고, 당장 해결이 시급한 상황을 알리고자 함

4. 출품작

기후변화와 환자의 인권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 현대에 들어서 1인 가구, 혼밥이라는 단어가 생겨날 만큼 혼자 살아가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게 된 사회가 되긴 했다. 1인 가구의 수는 2·30대 젊은 층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2·30대 우울증 환자의 수가 늘어난 것을 보면, 이는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한다. 아무리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나는 그 순간이 신체적으로 아픈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간호학과 학생의 신분으로 병원 실습을 나가보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고통을 겪고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아직 학생의 신분이라 환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간호사 선생님들 곁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니 하루빨리 간호사가 되어 환자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병원비가 드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보험체계가 굉장히 잘 되어있고, 병원마다 사회사업팀이 꾸려져 있어 병원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의 환자분들도 본인의 상태에서 받아야 하는 치료를 다 받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워낙 잘 되어있다 보니 외국의 사정도 궁금해졌다. 이에 여름방학이라는 시간의 기회를 빌려 몽골로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몽골”이라는 나라를 생각했을 때 처음 들은 생각은 ‘드넓은 초원’과 ‘사막’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큰 오산이었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초원의 범위는 줄어들고, 사막이 넓어지고 있었다. 사막이 넓어지면서 초원에서 가축을 기르며 옮겨 다니는 삶을 사는 몽골인들의 일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기본적인 의식주에 문제가 생겨 이는 건강에 이상을 불러일으켰다. 정작 기후변화를 일으킨 건 몽골인이 아닌데, 몽골인이 피해를 입고 있었다. 생명권, 주거권에 이어 인권까지 침해를 당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것으로는 환경오염, 식량전쟁과 같이 지구온난화로 변한 지구의 모습이었는데, 이는 피해의 일부에 불과하였다.

몽골인들은 주거권을 박탈 당했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몸이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 것이다. 이걸 비

단 몽골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깨끗한 물도 마시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상황에 있는데, 이는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 즉 환자들의 인권에 기후변화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기후변화, 인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 모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조금씩 바뀌어나가야 한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불러오는 만큼 시작은 미미할지 몰라도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나만 잘 살면 돼'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살아야지'로 세상의 중심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1. 이름: 조세린
2. 작품 제목: 35°C 폭염 속에서 사라져간 나의 권리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2024년 여름, 워터파크 안전요원으로 일하던 중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의식을 잃을 뻔한 경험을 바탕으로 글을 쓰게 됨</p> <p>-기후변화가 추상적인 환경문제가 아닌 생명권, 건강권, 노동권 등을 위협하는 현실적인 인권 문제임을 보여주하고자 함</p>	<p>-첫째,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p> <p>-둘째, 기후 취약계층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p> <p>-셋째, 개인의 인식 변화는 곧 사회 변화의 시작</p> <p>-넷째,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행동에 나서야함</p>

4. 출품작

< 35°C 폭염 속에서 사라져간 나의 권리 >

그날 온도계는 35°C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숫자와 함께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안전할 권리’, ‘건강할 권리’가 더위 속으로 사라져갔다.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으로 돌아간다.

2024년 여름은 한국환경연구원이 발표한 ‘2024 극한기후영향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2018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폭염의 해로 어깨를 나란히 했다. 2024년 폭염은 새로웠다. 최고기온은 세 년도 중 35.8도로 가장 낮았지만, 일 최고기온 폭염일수, 체감기온 폭염일수, 그리고 열대야 일수는 가장 높았다.

그 무렵 나는 야외 워터파크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일하게 되었다. 교육을 받고 일한지 막 4주가 되어가던 어느 수요일이었다. 휴대폰으로는 폭염에 대한 재난 경보가 하루도 빠짐없이 날아왔다. 밖에 10분만 서 있어도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가 뜨거워지는 것이 느껴질 정도였으니 당연했다.

내 근무는 1시 30분 동안 세 구역을 30분씩 돌아가며 지키고, 이후 30분은 실내에서 비상대기를 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오후 1-2시는 햇빛이 가장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이다. 다행히 모든 근무지에 그늘 공간이 있지만 늘 그곳에만 머물 수는 없었다.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 계속 움직이고 주변을 관찰하며 위험요소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근무하던 중이었다. 갑자기 눈앞이 흰색으로 페이드 아웃되기 시작했다. 마치 반투명 필터를 씌운 것처럼. 다음 장소로 교대하기 전 약 10분 전. ‘조금만 버티자. 그 정도는 괜찮겠지.’ 점점 뿌해지는 눈 앞을 뒤로 하고 제대로 손님들을 보기 위해 노력했다. 드디어 교대자가 오고 나는 몸의 중심을 최대한 맞추며 비상 전화기로 걸어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육체와 정신이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수화기를 들고 앞에 서니, 시야가 완전히 하얘지기 직전이었다.

침착하게 비상 전화 번호가 적힌 쪽지를 찾아 눌렀다. 수화기 넘어 신호음이 들린 순간, 온 세상이 새하얘졌다. 정신이 육체를 반쯤 나간 듯했다. 귓가에는 “네, 여보세요.”라는 말이 들리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이제는 의무실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정신줄을 간신히 붙잡고 담당 구역과 이름을 전하고, 의무실에 가겠다고 빠르게 말했다. 목표를 달성하니 귀에 들려오는 말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수화기에서 어떠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수화기를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의무실로 몸을 이끌고 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을 때마다 뜨겁고 까칠한 바닥이 느껴졌다. 마침내 의무실 문을 열고 침대에 누웠다. 의무실 선생님은 내게 이름과 소속을 물으시곤 간단한 진찰을 하셨다. 간단한 전화 후, 담요를 덮어 주며 쉬라 말씀하셨다. 잠시 뒤 주임이 오셔서 “평소에 혈압이 낮았어요?” 라고 물으셨다. 하지만 나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수영을 하고 학교에서 매주 축구도 했었다. 이후 며칠간 더 근무했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됐고 결국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날씨는 더 이상해졌다. 이번 여름방학만 봐도 그랬다. 아침에는 비가 억수로 쏟아지다 낮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강한 햇빛이 내리쬐다. 옆 동네에서는 폭우로 인해 홍수가 났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이 정도 더위는 참을만하다’고 생각 했던 게 객기가 되어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또 강릉에서는 댐이 말라 긴급 재난 선포가 내려졌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를 재배하던 농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화력발전소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미 WHO나 IPCC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 수차례 경고한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내가 겪었던 경험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의 폭염이 생명권, 건강권, 노동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한 실제 사례였다. 그런데 난 그런 일이 있고도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이 되어서야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게 부끄럽다. 기후취약계층인 야외 근로자가 되고 나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으니 말이다. 나는 단순히 경험 삼아 이 일을 선택했지만, 만약 안전요원이 생계 수단이라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이제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행동이 필요한 때다. 여름방학이 끝나갈 무렵, 나는 기후변화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복수전공으로 기후변화융합전공을 선택했다. 그러나 공부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개인적으로는 고기 두 번 먹을 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며, 제주도에 갈 때는 비행기보다 선박을 이용하고, 해외여행 시에는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사용하는 항공사를 선택하려 한다. 사회적으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자 한다.

이 글이 첫걸음이 되어, 많은 사람이 기후변화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인권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35°C의 뜨거운 여름날, 내가 잃었던 권리들을 다시는 누구도 잃지 않도록 말이다.

1. 이름: 윤지호
2. 작품 제목: 더위 속 권리, 기후 속 인간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일본 교환학생 시절 한여름에 기숙사 에어컨 고장으로 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일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작품을 제작함	-기후변화는 단순한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임을 알리고자 함

4. 출품작

더위 속 권리, 기후 속 인간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던 여름 나는 처음으로 기후 위기를 몸으로 느꼈다. 기숙사 방 안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고 에어컨은 며칠째 고장 나 있었다. 창문을 열어도 더운 바람만 밀려 들어왔고 밤이 돼도 열기는 식지 않았다. 침대에 누우면 땀이 이불을 적셨고 책상에 앉아 공부하려 해도 손바닥에 맺힌 땀 때문에 펜이 미끄러졌다. 날씨가 불편하다는 수준을 넘어 하루를 버티는 것 자체가 지옥이었다.

처음에는 ‘며칠 정도야 참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다. 집중은커녕 생각조차 이어가기 힘들었고 잠을 못 자는 밤이 반복되면서 무력감을 느꼈다. 그때 깨달았다. 인권이란 거창한 선언이나 법 조항이 아니라 숨을 쉬고 자고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을. 나는 젊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 불편을 어찌어찌 버틸 수 있었지만 만약 내가 노인이었거나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혹은 어린아이였다면? 그 방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기후 위기는 언제나 가장 약한 사람들을 먼저 위협한다. 뉴스 속에서 보던 폭염에 쓰러진 노인, 에어컨이 없는 집에서 더위와 싸우는 아이들, 해수면 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섬나라 주민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명권과 건강권, 주거권까지 위협하는 인권 문제라는 것을 말이다. 전에는 기후 위기를 먼 나라 이야기, 또는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문제처럼 느꼈다. 하지만 그 여름 기후 위기는 내 방 안에서 내 땀방울 속에서 현실로 다가왔다. 뉴스 속 빙하가 녹는 장면이나 그래프가 아니라 숨이 막히고 잠을 잘 수 없는 현실에서 인권의 의미를 깨달았다. 인권은 법전 속 문장이 아니라 시원한 공기, 깨끗한 물,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돌아보면 나의 고통조차도 특권이었다. 나는 여전히 전기를 쓸 수 있었고, 에어컨이 곧 수리될 거라는 생각과 머지않아 이 고통이 끝난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세계 곳곳의 사람들은 이미 기다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사막화로 물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하는 아이들, 폭염 속에서 쓰러지는 노동자들, 집을 잃은 섬나라 주민들. 나의 땀방울은 불편에 불과했지만 그들의 땀방울은 생존의 경계에서 보내는 신호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나는 부끄러웠다. 더위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했던 내가 누군가에게는 사치처럼 들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경험이 나를 바꿨다. 이제 나는 기후 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로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인권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는 더 이상 교과서 속 자유권이나 평등권만이 아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 안전하게 쉴 수 있는 집,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 이것이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다. 기후 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권리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여전히 그 뜨거운 여름밤을 기억한다. 기후 위기는 환경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날의 경험은 나에게 의무처럼 남았다. 인권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시험받는다는 것을. 기후 위기는 그 시험대 위에서 인간의 존엄을 가장 먼저 흔든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권을 방치하는 침묵이다. 기후 위기는 '언젠가 올 문제'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서 인권을 시험하고 있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권리는 바로 숨 쉬는 공기와 마실 수 있는 물, 안전하게 잠드는 공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겪은 그 뜨거운 여름, 땀방울 속에서 느낀 것 들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계속 기억할 것이다.

기후 위기는 곧 인권의 위기이다. 그것은 국제회의 속 통계나 보고서가 아니라 작은 기숙사 방 안에서 흘린 땀과 잠을 설친 새벽 속에서 시작된다. 그 경험을 잊지 않고 목소리를 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인권을 지켜내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1. 이름: 박지혜(장려상)
2. 작품 제목: 온라인 인권침해와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과 온라인 인권침해(SNS에서의 혐오 표현)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생각함	-우리가 서로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다정함(친화력)라는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인간의 우정이 인류를 구원해주는 소중한 무엇임을 깨닫기를 바람

4. 출품작

온라인 인권침해와 책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

새벽 5시 30분 모닝콜이 울린다. 루틴화가 되어 기계적으로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알람을 끄고 30%정도 열린 눈을 뜨고 운동복을 입고 정수기 앞에 서서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삼킨다. 그리고 운동화를 끈을 발에 알맞게 조이고 현관문을 나선다. 9월 말이 다가오고 해가 짧아지기 시작해, 새벽하늘은 깜깜한 저녁하늘 같다. 발목을 돌리고, 허리를 좌우로 스트레칭하고 5분정도 살살 걷다가 5Km 조깅을 시작한다. 22년도부터 지금까지 내가 해오고 있는 운동이다. 달리기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좋은 시간이고, 그 누구의 간섭없이 조용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라 정신위생에 매우 좋다. 주로 달리는 곳은 작은 천이 흐르고, 오리떼와 외가리가 한적히 돌아다니는 멋진 석사천변 코스다.

요즘 한국에는 러닝붐이 일고 있다. 5명 중 1명은 러닝을 한다는 통계가 있다고 하니, 실로 엄청난 숫자다. 나는 이러한 현상이 좋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취미로든, 건강을 위해서든 달리기라는 멋진 운동을 한다는 것이, 러닝을 꾸준히 몇 년째 하고 있는 나로서는 무척이나 반갑다. 좋은 것은 모두와 함께 하고싶은 법이니까.

나는 인스타그램에 나의 운동기록을 꾸준히 올리고 있다. 나 자신과의 약속을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지키는 중이다. 러닝붐 때문인지 인스타그램에는 수많은 러닝인증 게시물과 러닝크루 사진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온다. 러닝크루는 러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어 일정 시간에 모여다 같이 러닝을 하는 모임이다. 혼자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한 것이 모여 조직이 되었을 때 더 시너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을 보는 시각이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게시물의 댓글 통해 보게 되었다. “달리려면 혼자 달리지 왜 떼거지로 다니면서 시끄럽게 하냐”, “러닝크루 저긴 동물의 왕국이야”, “왜 옷을 저렇게 입고 뛰냐”, “그냥 차에 부딪혀 죽어라” 별의 별 이유로, 또는 이유도 없이 욕을 한다. 우리는 이런 SNS속 대혐오의 시대 속에 있다. 슬프게도 어떤 다른 종류의 게시물을 보더라도 욕설, 폭언, 혐오의 댓글이 달리지 않은 글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우리는 온라인 인권침해의 대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브라이언 헤어, 버네사 우즈가 쓴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라는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다정한, 친화력이 있는 종이 번성하고 살아남는다는 이론을 설명하는 과학책이다. 인류가 현재까지 이렇게 번성하고,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다정함(친화력)으로 설명한다. 인간(호모사피엔스), 영장류인 침팬지, 보노보, 늑대, 개 등에 대한 동물을 통해 다정한 종이 어떻게 자기 가축화를 통해 번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과, 실험, 이론이 나온다. 그 중 보노보라는 동물은 침팬지와는 달리 공격성이 없고, 다정한 종인데, 서로 싸우거나 죽이는 일이 없고, 자신의 먹이를 무리와 함께 나눠 먹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 사랑스러운 종이 아닐 수 없다. 침팬지도 인간도 서로를 죽일 수 있는데, 보노보는 야생의 종이건, 우리 안에서 자란 종이건 서로 죽인 기록이 없다고 한다. 우리가 보노보에게서 배워야 하나 싶었다.

인간은 같은 집단끼리는 서로 한없이 다정하나,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집단에게는 또 한없이 잔인할 수 있는, 지구상에 가장 관용적인 동시에 가장 무자비한 종이다. 2차 세계대전 발발 때 유대인 학살을 보라. 얼마나 무자비하게 희생되었는가! 그런데 그 와중에도 근처 폴란드 등의 이웃 나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숨겨주거나, 도와주고 보살펴준 기록이 있다. 비인간화로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도 인간이지만, 일면식도 없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도 인간이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사람들은 부자, 빈민, 인텔리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상관없이 없었다. 그들이 가진 공통점은 전쟁 이전에 유대인을 이웃으로 만났거나, 친구로, 혹은 직장동료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인간은 “접촉”을 통해 서로를 비인간화, 보복성 비인간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간의 우정이 인류를 구원해주는 소중한 무엇이 되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접촉”이 인간의 다정함을 이끄는 핵심 키워드라면, SNS상의 혐오의 댓글은 네트워크를 통해서만 이어져 있지만, 실제 접촉할 수 없는 존재들에 대한 거리감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욕하는 대상이 언제든 문을 열고 나가면 만날 수 있는 이웃사촌들이라면, 학교에 가면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이라면,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라면 우리는 과연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우리 개개인은 삶 속에서 실제로 계속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야 한다. 사람들 간의 우정, 다정함은 오랜 역사상 인간의 생존 조건 중 가장 큰 하나의 특징이다. 우리는 이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다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에 멸종하는 종이 될 수도 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 우리는 SNS속에서 서로의 인권을 세 치 혀로도 부족해 열 손가락까지 보태 해치고 있다. 인권에는 표현의 자유도 포함되어있지만, 이유 없는 혐오적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우리의 인권과 무지개빛 아름다운 영혼을 파괴한다.

우리는 편협한 나만의 기준에서 서로를 놓아주어야 한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 키보드 위에 우리의 열 손가락은 서로를 파괴하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서로 맞잡기 위해 사용해야 한다.

1. 이름: 문진우
2. 작품 제목: 평등기원론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이 작품은 대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와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성찰하기 위해 집필함 -대학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계적 성희롱·성폭력 문제, 피해자의 문제 제기의 어려움, 2차 피해 등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음 -대학이 단순한 지식 전달의 공간의 아닌 인권 감수성을 실천해야 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집필함	-이 작품은 대학 내 인권 침해가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 장치와 성평등 교육, 디지털 성폭력 대응 등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함 -또한 기후 위기 역시 인권과 연결됨을 지적하며, 대학은 지식 전달을 넘어 존엄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

4. 출품작

평등 기원론

평등이라는 단어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실려있다. 오늘따라 이 단어의 무게가 내 심장을 짓누른다. 평화로운 대학 강의실에서 나는 대칭의 저울이 요동치는 일을 목격했다. 가볍게 목례를 나누던 학우의 표정에 서서히 그늘이 드리워졌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 드는 세상 앞에서 가시를 세운 고슴도치처럼 그녀는 스스로 방어하고 있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그녀는 딥페이크의 희생자였고, 그 사실마저 본인의 입이 아닌 타인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평등이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악의적인 행동으로 무겁게 흔들리는 저울이라는 것을. 내 안에 남아 있던 편견의 비늘이 떨어져 나가고, 나는 비로소 평등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새롭게 읽게 되었다. 평등이란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철학 개념이 아니며, 그것은 매일 삶 속에서 조금씩 붕괴하며 다시 세워지는 파도 같은 것이다.

우리는 흔히 과학의 발전을 진보라 부른다. 그러나 그 진보의 그림자 이면에는 가장 영악한 이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먼저 일그러뜨린다. 딥페이크 기술은 초기에는 영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혁신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타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훔쳐내는 도구를 넘어 성적으로 희롱하는 범죄의 도구가 되었다. 피해자는 동의하지 않은 이미지 속에서 낯선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된다.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가상의 폭력 앞에서, 인간은 한없이 무기력해진다.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도 급속히 심각해졌다. 방송통신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대학가와 청년층이 주요 피해층으로 지목되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존엄을 위협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사회의 얼굴을 잃고, 보호의 울타리에서 버려지며 스스로 행복해지기를 포기한다. 이는 곧 자기 자신에게조차 타인이 되는 비극이다.

그러나 진짜 폭력은 기술 그 자체에서 비롯되지 않는다. 더 큰 폭력은 방관과 침묵 속에서 자라난다. 피해자의 고통을 목격하면서도 ‘어차피 내 일이 아니니까’라며 외면하는 태도, 루머를 구분하지 않은 채 퍼뜨리는 수문이 피해자의 삶을 더욱 궁핍하게 만든다. 기술은 도구에 불과하다. 그것을 범죄로 완성하는 것은 결국 공동체의 태도이다. 나는 그 학우에게서 단순히 피해자의 표정을 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그녀를 외면할 때 떠안아야 하는 고독의 그림자였다. 진정한 평등이란 누군가의 마음이 무너질 때, 외면하지 않고 다시 세워 올리려는 연대의 행동에서 비롯된다. 침묵은 중립이 아니다. 침묵은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며, 피해자를 두 번, 세 번 고립시키는 일이다.

평등을 이룩하는 일은 거창한 선언문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로는 피해자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순간에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곁에 서는 행동에서 비롯된다. 그렇다면 평등은 철학적 유토피아가 아닌 매일의 윤리적 선택이다. 내가 그 친구의 눈빛은 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지금, 나의 오늘을 지켜줄 것인가?” 나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은 지금도 내 양심을 괴롭히며, 동시에 나를 다시 서게 한다.

평등은 단 한 번에 완성되는 기념비가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탑이며, 인간의 손길이 닿는 한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 불완전한 구조물이다. 나는 뎀페이크라는 사건을 통해, 평등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목격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 힘은 제도나 선언이 아니라, 결국 사람들의 ‘숙고’와 ‘실천’에서 나온다.

대학은 단순한 학문의 장을 넘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을 미리 실험하는 작은 공동체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의 평등은 더 중요하다. 강의실에서의 농담 한 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짓밟을 수도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무심한 댓글이 한 사람의 존엄을 송두리째 흔들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무심한 자리에 따뜻한 경청과 존중의 말이 놓일 때, 대학은 비로소 평등을 배우는 공간이 된다.

평등은 거대한 제도 개혁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속에서 먼저 태어난다.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태도, 다름을 조롱하지 않고 존중하는 시선, 그리고 권력의 위계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문화를 만든다. 대학은 그 문화의 씨앗이 움트는 공간이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천하는 작은 평등은 훗날 더 넓은 사회에서 또 다른 저울을 곧게 세우는 힘이 된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영구 평화론’에서 “영원한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차 해결되어 그 목표에 끊임없이 더 가까이 다가서는 하나의 과제이다.”라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빌려 말하고 싶다. 평등은 이루지 못할 꿈이 아니라, 끊임없는 무너짐 속에서도 다시 세워가는 인간의 숙고이며, 우리가 오늘 행동으로 실천해야 할 내일의 약속이다.

1. 이름: 박창준
2. 작품 제목: 멕시코와 강릉일 잇는 기후 정의 보고서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이 작품은 멕시코 교환학생 시절 겪은 물·전기 부족과 한국 강릉의 물 부족 사태를 계기로, 기후 위기가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임을 깨닫고 집필함 -에세이는 기후 위기를 ‘기후 불평등’과 ‘인권 침해’의 문제로 연결해 독자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자 함	-이 작품은 기후위기가 현재 우리의 인권을 위협하는 보편적 문제임을 전달하고자 함 -독자들에게 기후위기를 인권과 정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제안함

4. 출품작

멕시코와 강릉을 잇는 기후 정의 보고서

2025년 1학기, 멕시코로 교환학생을 떠나며 저는 낯선 문화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밤늦게 들어와 가스가 끊겨 차가운 물로 씻으며 잠이 달아나던 밤, 전기가 없어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틀지 못해 끈적한 더위 속에서 잠 못 이루던 밤을 보냈습니다. 수도나 전기가 자주 끊겨 세탁기를 돌리지 못해 깨끗한 속옷과 옷이 없어 외출을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누리던 자원들이 부족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수도, 가스, 전기와 같은 자원이 매주 한 번씩 끊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권을 침해당했지만, 다행히도 학교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대형 물탱크와 발전기를 따로 구비해두었습니다. 학생 신분이었던 저는 교내 시설을 이용하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문득 저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현지인들의 삶은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을 마음껏 사용하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전기로 생활하는 기본적인 권리가 누구에게는 당연하고 누구에게는 특권이 되는 상황. 이는 기후 불평등의 명확한 사례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현실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 보편성에 위배된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와 같은 강원도에 있는 강릉의 물 부족 뉴스를 접했을 때, 그 충격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1, 2일만 물이 끊겨도 너무나 힘든 삶이었는데, 기약 없이 물 부족을 감내해야 했을 강릉 주민들의 고생은 감히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멕시코에서 친하게 지냈던 한국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도 멕시코처럼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었고, 복지가 잘 갖춰진 선진국이라고 믿어왔지만, 기후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 역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은 지원과 강우로 위기를 넘겼지

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면, 서로 돕는 일조차 어려워질 것입니다. 기후 정의를 외면한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원은 더 이상 모두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돈을 가진 자만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상품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재활용과 자원 아끼기처럼 지구를 위한 일들이 중요하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실천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멕시코와 강릉의 두 풍경이 증명하듯이, 기후 변화는 환경 문제를 넘어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결코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기후 위기로 인해 침해당하는 인권을 위해, 작은 실천이라도 기꺼이 행동할 것입니다.

1. 이름: 한수빈
2. 작품 제목: 무너지는 계절 속에서 보편적 건강권의 실현을 꿈꾸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이 에세이는 기후 변화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건강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윤리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고통받는 현실을 주목함</p> <p>-페루 의료봉사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가 피부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이어지는 현실적 고통을 체감했고, 의과대학생으로서 질병 치료 중심의 기존 의료 시스템 한계와 미래적 대응 필요성을 지적함</p> <p>-궁극적으로 보편적이고 평등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p>	<p>-세계 시민으로서의 책임: 기후 변화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인류 공동의 위협이며,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책임과 영향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자연과 인간의 조화 없이는 진정한 건강권도 실현될 수 없음을 보여줌</p> <p>-미래 의료 종사자로서의 역할: 의료는 단순 치료를 넘어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는 윤리적 실천이어야 하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예방중심·개인맞춤형 의료의 필요성을 강조.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불평등과 인권문제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제시함</p>

4. 출품작

무너지는 계절 속에서 보편적 건강권의 실현을 꿈꾸다

폭염의 땅에서 마주한 ‘나’와 ‘우리’의 경계

페루 리마의 빈민촌을 내리찍는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 내가 마주한 것은 단순한 의료 봉사가 아니었다.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힘든 주민들의 피부는 자외선과 기생충 감염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기온 상승과 열악한 위생은 아토피와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국의 땅에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나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 먼 미래의 재앙’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소외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의 폭력’임을 깨달았다. 생명권·건강권·주거권·식량권의 침해는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왔으며, 이는 결코 페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유례없는 폭염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

계절의 소멸과 의료 시스템의 한계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은 20세기 초에 비해 1.6°C 상승했으며, 여름은 20일 길어지고, 겨울은 22일 짧아졌다. 이는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극한 기후가 일상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끝없이 반복되는 폭염경보와 태풍경보는 단순한 기상 현상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초래한 인권 침해의 증거다. 쪽방촌 주민들은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농어촌 사회적 약자들은 생계의 기반을 잃는다. 기후 변화가 특정 집단에 더 가혹하게 작용하는 불평등성은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의과대학생으로서 나는 이러한 현실이 우리 의료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실감

한다. 현행 의료는 질병이 발생한 뒤 개입하는 방식에 머물러 있어, 기후 변화가 불러오는 새로운 질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예방 중심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우리는 기후 변화가 직접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질병들 앞에 속수무책이다.

미시적 변화, 거시적 질병: 피부와 정신의 재앙

지구 온난화는 단순한 기온 상승을 넘어 우리 몸의 생태계에도 미세한 변화를 일으킨다. 대기오염 물질과 꽃가루의 확산은 아토피, 여드름, 건선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을 악화시키며, 진드기·모기와 같은 매개체는 과거 드물었던 질병을 확산시키며, 이는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더불어 기후 변화는 정신 건강에도 깊은 상흔을 남긴다. 폭염·홍수·산불 같은 극단적 재난을 경험한 이들은 PTSD를 겪고, 지속적인 불안은 '기후 불안(climate-anxiety)'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우울과 무력감을 유발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기후 불안 점수는 평균 1.90점(5점 만점)에 달했으나,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관심을 가지고 앞장설 20대 인구는 전체 성인인구의 2배정도인 90% 이상 기후 변화에 대해 불안을 호소했다. 이는 나와 나의 동기, 가족 더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정신 질환이 환경 요인과 맞물려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것임을 시사한다.

진단과 치료의 간극, 그리고 맞춤형 의료의 미래

현대 의료는 첨단 진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치료의 다양성에서는 한계를 드러낸다. 유전체 분석으로 정밀한 진단은 가능하지만, 개인 맞춤형 치료는 여러 표준 약물 중 환자의 특정 바이오마커에 가장 잘 반응할 '최적의 기존 치료법'을 선택하는 선에 그치고 있어, 환자 개개인의 독특한 병태 생리에 맞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신 질환 분야는 몇 안 되는 약물에만 의존하고 있다. 수십 년간 새로운 기전의 약물이 거의 등장하지 않아, 우울증이나 조현병 환자들은 부작용이 크거나 효과가 제한적인 소수의 약물만으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실정이다. 진단은 치료가 뒷받침될 때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정교한 진단 결과가 나오더라도 효과적인 치료 대안이 없다면 환자는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되고, 이는 곧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에 치료의 다양성 부족은 진단 결과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비용·접근성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병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사후적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환경 오염이나 이상 기온 변화로 인해 새롭게 나타날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의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차단하는 예방적 시스템 구축을 지향해야 한다. 개인의 유전적 특성, 환경 요인, 생활 습관을 모두 고려하는 진정한 맞춤형 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하고, 개개인의 건강 위험도를 점수화하여 초개인화된 생활 습관 교정 가이드라인과 나노 기술 기반의 예방적 처방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접근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권 수호와 미래 보건 리더의 길

나는 기후 위기가 단순히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앞으로 의 의료는 특정 계층만을 타겟으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아니라, 지구상 모든 이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보건 정의의 실현이어야 한다. 의료인은 환자의 곁을 지키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 연대 속에서 의료의 사회적 책임을 확장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맞선 건강권 수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현재 닥친 현실에서 '세계시민의 건강권 수호'는

인류 모두에게 평등한 건강을 보장하는 세계 평화를 지향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미래 보건 리더를 지망하는 학생으로서, 나는 이 거대한 전환의 물결 속에서 햇불을 들고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인류애와 의학적 통찰을 결합하여, 불평등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모두가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 그 길을 개척하기 위해 내 안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1. 이름: 이유빈
2. 작품 제목: 뜨거운 지구, 차가운 미래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기후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 피해는 공평하지 않고, 특히 책임 없는 아동들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모순을 드러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 의식을 일깨우고자 함	-뜨거워지는 지구 속에서 아동들의 미래는 얼어붙고 있음. 불평등한 기후 위기 속 아동 인권을 지키기 위해, 지금 세대의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함

4. 출품작

뜨거운 지구, 차가운 미래

인류가 하루 세끼를 꼬박 먹게 된 것이 백 년이 채 지나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면 믿어지는가? 인류의 출현 이후 처음으로 찾아온 기하급수적인 성장. 우리는 그 덕에 풍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신석기 시대부터 이어진 농경사회가 막을 내리고 AI와의 공존을 바라보는 지금, 인간의 삶은 더 나은 미래들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을 뒤흔치는 거대한 그림자를 목격하고 있다. 바로 '기후 위기'이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청자 중 기후 위기를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이는 적다. 왜냐하면, 경제적 강자가 만들어놓은 기후 위기는 가장 먼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크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열섬 현상이 있다. 여름철 폭염이 도시를 덮칠 때, 누군가는 에어컨과 함께 시원한 건물에서 더위를 피한다. 반면, 다른 누군가는 낡은 주택에서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이들은 냉방 시설이 부족하거나, 요금 부담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도시에 살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라 더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다르게 주어진 셈이다.

같은 도시 내에서의 차이가 이 정도인데, 국가적, 전 세계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은 과연 어떨까? 안타깝게도 기후 위기의 위험은 그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에게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 지금의 기후 위기를 만든 소수의 국가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방파제를 쌓고 있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은 해수면 상승과 사막화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다. 그들은 잘못 없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 생존을 위한 고단한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대열의 가장 앞에는 아동들이 서 있다.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을 외면한 대가로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다. UN 아동 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지만, 현실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몇 시간을 걸어야 하고, 이주 속에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다. 기후 위기는 그들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가고,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을 파괴한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기후 위기가 아동의 내면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이들은 '기후 불안'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고통을 겪는다. 2024년 환경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 76.3%가 기후 위기로 인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한다. 한창 꿈을 꾸어야 할 아이들이 어른들이 떠넘긴 기후 부담으로 새로운 심리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사고로 기후 문제를 경제적 손익으로 따져선 안 된다. 기후 변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책임이 없는 미래 세대이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대신, 오염된 공기를 마시지 않아도 될 세상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다. 한 아이의 눈물은 곧 우리 모두의 슬픔이며, 한 아이의 고통은 곧 우리 모두의 죽음이다. 기후 위기 극복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임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잠재된 연대를 깨우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파괴된 지구가 아니라, 푸른 삶의 터전이어야 한다. 우리의 무관심으로 인해 뜨거워진 이 지구에서, 아이들의 미래는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 이젠 뜨거운 지구를 식히고, 차가운 미래를 녹일 차례다.



@ Google. (2025. 9. 26). *뜨거운 현실과 차가운 미래를 담은 지구를 내려다보는 아이* [디지털 이미지]. Generated using Google AI Image Generator.

1. 이름: 최유진
2. 작품 제목: 대기업 마저 외면하는 지구, 그리고 우리의 권리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10년간 사용해 온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면서 20년 넘게 사용 중인 일반 냉장고와 비교해보니 기업이 이윤을 위해 의도적으로 소비기한을 단축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됨 -이러한 소비구조가 환경과 인권에 어떤 문제를 야기 하는지 에세이를 작성하게 됨	-냉장고의 수명 단축이라는 사례를 통해 기업의 이윤 중심 구조가 환경 파괴에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인간의 생명권, 건강권, 평등권까지 위협하고 있음을 알리고자 함

4. 출품작

대기업 마저 외면하는 지구, 그리고 우리의 권리

얼마 전 저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아이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성은 김이었고 이름은 치냉장고라는 10년간 저희 집 김치들의 맛을 책임 지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하던 아이였습니다. 미지근한 물도 넣어 놓으면 금방 시원해져서 일반 냉장고보다 아끼던 친구였습니다. 한 달 정도 시름시름 하니 상태가 안 좋아져 지난 8월 해당 김치냉장고 회사의 기사님을 불렀는데 생을 마감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진 말은 ‘이거 10년은 된 모델이네요. 이 정도 쓰셨으면 정말 오래 쓰신 거예요. 요즘은 4~5년 쓰고 바꿔야 하는 경우도 많아요. S사나 L사나 10년 이상으로 쓰기 어려워요.’라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김치냉장고 옆에 있는 아이는 올해로 22년 된 아직도 뽕뽕하게 작동하고 있는 냉장고라는 점입니다.

기업들은 화려한 외관, 세분화된 보관 기능 심지어 AI 기술까지 접목시켜 제품을 만들고 광고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기술의 발전이 ‘환경’과 ‘지속가능성’까지 담고 있는가”에 의문이 듭니다. 냉장고 수명의 단축이 단순히 소비자의 지갑 사정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짧아진 사용 기간은 쓰레기의 증가와 자원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사용을 다한 제품이 버려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와 새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는 고스란히 지구가 부담해야 합니다. 결국 지구에 대한 배려 없이 기업은 이윤을 얻고, 소비자는 새 제품을 사야 하는 악순환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단순 가전제품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의 제품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제품의 수명 단축이 환경과 인권을 위협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문제는 단순 악순환이 아닌 인권 문제로까지 확장됩니다. 무분별한 지구 자원의 사용과 탄소 발생으로 지구는 계속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의 여름은 해마다 뜨거워져 온열질환 환자가 증가하고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겨울은 점점 더 혹독해져 추위에 두려움을 떨고 충분한 난방을 하지 못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사회는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대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요인이 된 것입니다.

기후 위기는 평등권도 침해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냉난방 기기를 마음껏 가동하며 추위와 더위로부터 피신을 하지만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는 그럴 수 없습니다. 냉난방비가 생활비의 큰 부담이 되기에 마음껏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여름에는 찜통더위 속에서 버티고 겨울에는 냉기 가득한 방에서 버티야 합니다. “없는 사람들은 겨울이 무섭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 하소연이 아니라 기후 위기가 만들어낸 불평등으로 다져진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도 생각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편리를 위해 남용하는 자원과 온실가스 배출은 지구를 살아갈 사람들이 감당하게 됩니다. 2024년 8월 한국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기후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에 있어 ‘미래 세대의 권리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온실가스 감축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을 위한 목표는 단지 국제사회의 약속이 아닌 이 지구에서 꿈을 키우고 살아가야 할 아이들과 청년들과 미래의 지구를 이끌어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누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 됩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함께 뜻을 같이해야 합니다. 국가는 온실가스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하고 기업은 오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며 생산과 사용의 과정에서 탄소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환경을 고려한 정보를 제공받고 선택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지구와 인권 모두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냉장고 하나의 수명에서 조심히 질문을 던져 봅니다. 단순히 인간이 지켜야 할 권리는 생존만 걸린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평등하게 미래세대와 함께 살아갈 권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권리에 담겨있습니다. 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지구를 생각하고 아껴주세요. 당신을 위한 바람입니다.

1. 이름: 정우현
2. 작품 제목: -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p>-저는 늘 인류애와 타인에게 주는 영향을 성찰해왔고, 제 일화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나누고 싶었음.</p> <p>-학교 독서 동아리에서 남자로서 겪은 성차별경험을 담아,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함</p>	<p>-독서 동아리에서 차별을 겪으며 화가 났지만, 스스로 입장을 바꿔 생각하며 저 또한 타인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을 깨달았음</p> <p>-그 과정에서 자격지심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웠고, 다름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해야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함</p>

4. 출품작

인류애 가득한 사회

저는 학교 독서 모임에서 성차별적인 말을 들은 적 있습니다. 여성 네 분과 독서 모임을 가졌을 때 남자들은 왜 그렇냐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남자들은 왜 성욕이 많냐? 많아도 그것을 왜 표출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남자로서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게 이상한 것도 죄도 아닌데 성욕이 많다는 이유로 저의 정체성이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꼭 지목해서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모임에 남자가 저 혼자였기에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게 모임은 어찌저찌 끝났지만 그 이후로 늘 의문이 들었습니다. 남성의 성욕이 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으로 이어진다면 분명 문제입니다. 하지만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그 사람이 문제인 것이지. 과연 성욕을 가진 남성 자체가 잘못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었습니다.

분명 본인과 다른 성별에게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고 그것에 의문을 가지는 건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살면서 그런 적이 많고 저와 다른 성별에 대한 의문은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대의 성별 특징 일부를 도덕성과 연결 지으면 논리적인 오류가 생깁니다. 어떤 성별이든 각자만의 선천적인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을 비윤리적인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은 처벌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 비윤리적인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특정 성별을 혐오하거나 싫어할 이유는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합리화를 합니다. 저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은 나한테 피해를 줄 테니 나쁜 사람이고 나는 피해를 안 줄 테니 착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범죄는 우리 삶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의지와 다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고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결국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단순히 생존과 번식만을 위해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상대의 안 좋게 보일 수 있는 점이 장점일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특정 성별 중 하나의 성질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은 커뮤니티와 뉴스를 통해 비극적이고 보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혐오감은 짙어지고 오해는 쌓여 갑니다. 저는 믿고 싶습니다. 특정 성별을 악마화하는 소식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부터가 스스로 자격지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인을 깎아내리다 보면 자신의 자존감도 깎여 내려집니다. 타인의 안 좋은 모습은 분명 자신의 안 좋은 모습과 맞닿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은 부족한 인간이기에 함께 사랑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혐오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고 이해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신부터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신에게도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싫어하거나 혐오하진 않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우리 모두 관용적인 자세로 “너와 나는 다른 모습이 있구나. 너와 다른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르지만 그래도 함께 이해하면서 우리 잘 지내보자” 하는 인류애를 장착한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나를 지키고 타인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것을 하루빨리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랑과 관용을 베푸는 학생들이 진정으로 자신을 아끼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의 바램이 있다면 학교에서 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전에 인류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줬으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류애란 나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배척하면 타인이 상처받을 뿐만 아니라 그 상처는 나에게 돌아옵니다. 인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인류애에 대해 끊임없이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과 다르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사람이듯이 당신도 저와 다르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인 공감을 실천해 가겠습니다. 늘 반성하고 사람들과 다른 부분들을 용인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향한 증오는 결국 저에 대한 증오라는 것을 하루빨리 깨달아서 다행입니다. 결국 행복한 사회는 인류애 가득한 사회입니다. 저부터 인류애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1. 이름: 양정모
2. 작품 제목: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혐오 표현이 학생 인권에 끼치는 문제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과 무분별한 발언이 학생들의 정신적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 함 -이를 통해 건전한 온라인 소통문화를 정립하고, 대학 공동체 내 인권의식을 제고하고자 함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혐오 표현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임을 인식해야함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과 사회의 제도적 책임이함께 요구됨

4. 출품작

-대학 커뮤니티와 SNS에서의 혐오 표현이 학생 인권에 끼치는 문제-

현대 사회에서 대학 커뮤니티와 SNS는 대학생 간 소통과 정보 공유는 물론 정서적 지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과 비대면 특성으로 인해 혐오 표현과 사이버불링이 만연,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 학생이 우울증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으나, 악성 댓글과 모욕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는 사건은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 전반에 환기시켰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조사에 따르면, 83%가 SNS 등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하며, ‘에브리타임’ 이용자 79.1%가 게시글·댓글에서 혐오 또는 비방 경험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직접적으로 혐오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혐오 표현은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 차별적 편견과 적대성으로 구성된 공격적 언어나 행동을 말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책임 회피가 용이해지고, 표현 수위가 오프라인에 비해 극단적으로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여성 대상 혐오 표현 경험이 80.4%로 가장 높았고, 특정 지역(76.9%), 페미니스트(76.8%)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 대한 혐오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대 남성은 온라인상 남성에 대한 혐오 경험률이 88.4%로 매우 높아, 세대와 성별에 따른 혐오 표현 격차도 두드러집니다. 이처럼 혐오 표현은 피해 집단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에브리타임’과 같은 대학 커뮤니티는 익명성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혐오 표현과 악성 댓글이 만연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청년참여연대 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9.1%가 게시글 또는 댓글에서 혐오, 비방, 막말로 인한 불쾌 경험을 보고하였고, 소수자 혐오 표현 비율은 27.4%에 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수업 확대와 사회적 거리 두기는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도를 증가시키며 혐오 피해 규모 또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신고 누적 자동 삭제 시스템은 신

고 남용과 기준 모호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자 보호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비밀게시판에서는 개인적 고민을 나누는 공간임에도 무책임한 댓글과 성희롱 사례가 빈발해 정신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본인의 직접 경험에 따르면 ‘공대 다니는 남자애들은 잘 씻지도 않고 소심하다’는 고정관념이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를 포함한 SNS상에서 반복되어 공대생 전체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악의적인 혐오 표현으로 변질, 대상 학생들의 정신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을 촉진하였으며, 학교 공동체 내 불평등한 편견 확산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특정 학과나 집단에 대한 구조적 차별과 혐오가 구체적 인권 침해로 연결되는 사례로서, 대학 사회 내 편견 극복과 포용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절실히 보여줍니다.

혐오 표현은 학생들의 개인적 정서 뿐 아니라 학습권과 사회적 참여 기회까지 위축시키는 중대 인권 침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혐오 표현 경험자의 자살 충동 비율이 41.5%로 비경험자 2.74% 대비 월등히 높아 정신건강 위험도가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혐오에 노출된 학생들은 우울, 불안, 스트레스 증세로 학업 집중도와 자기표현 능력이 떨어지고, 집단적 갈등 심화로 공동체 분위기가 악화돼 캠퍼스 내 안전한 학습 환경이 훼손됩니다. 특히 여성,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집단에서 피해자가 집중된다는 사실은 전문적 지원 및 예방 교육 체계 마련의 긴급성을 시사 합니다. 또한, 이러한 혐오표현을 어린 아이들은 교실, 가정,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등에서 반복적으로 혐오 표현과 차별적 언어에 노출되면서 무의식적으로 습득할 위험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은 혐오 표현을 ‘장난’이나 ‘재미’로 인식하며 친구들과 사이에서 모방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유튜브, 온라인 게임, 인터넷 방송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반영된 표현들이 일상적으로 반복돼 아이들의 언어습관과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초기 학습은 성장 과정에서 차별적 시선과 낙인을 강화하고, 인권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감 형성을 저해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악영향은 미래의 사회분위기를 악화하는데도 기여될 것입니다.

현재 대학과 정부는 혐오 표현 대응을 위해 신고 누적 기반 자동 삭제 시스템과 인권 교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신고 절차의 주관성과 악용 문제로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인권단체들은 AI 악플 탐지 시스템 개발, 신고 처리 신속화, 피해자 심리 지원 강화를 요구하며,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법적 제재와 교육, 사회 전반 인식 개선 캠페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엇보다 학생 개개인이 혐오 표현 문제를 인식·자제하고, 대학과 사회가 공동의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문화 구축이 근본적 해결 방안입니다.

대학 커뮤니티 및 SNS 내 혐오 표현 문제는 단순 언어폭력을 넘어 학생들의 정신 건강과 기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회적 위기입니다. 익명성을 악용한 혐오 표현은 특정 전공자와 사회적 소수자에게 집중돼 대학 공동체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대학과 정부, 학생 사회가 인권 중심 정책과 문화 조성에 협력하여 안전하고 존중받는 학습 환경과 온라인 문화를 함께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 이름: 조하경
2. 작품 제목: 꼬끼리는 분명히 방 안에 있다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2022년 신림동 반지하 침수 참사처럼 재난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는 현실에 충격을 받아 글을 쓰게 됨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결합된 명백한 ‘인권재난’임을 알리고자 함	-기후위기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는 재난임을 전하고 싶었음 -이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모두가 함께 문제를 마주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음

4. 출품작

꼬끼리는 분명히 방 안에 있다

2025년 여름, 한국은 거대한 찜질방이 되었다.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되었고,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매년 증가했다. 전력 사용량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강릉에서는 기어코 단수를 실시했다. 이렇듯 기후 변화는 더 이상 일부 환경운동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재난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마치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 개구리처럼, 이 명백한 위기 앞에서도 애써 태연한 듯 살아간다. 기후 변화는 너무나 분명하고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너무 거대해서 차라리 보이지 않는 듯, 존재하지 않는 듯 외면하고 싶은 불편한 진실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 더는 눈을 가린 채 못 본 체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극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기후 재난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2022년 8월의 그 밤을 기억한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서울을 강타하던 그 밤, 나는 2층에 위치한 우리 집에서 맹렬한 빗소리를 들었다. 쏟아지는 비는 나에게 그저 ‘창밖의 시끄러운 소음’이자 ‘내일 아침 출근길이 막히겠다’는 가벼운 걱정거리일 뿐이었다. 에어컨 아래에서 안전하게 잠든 사이,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한 가족이 바로 그 빗물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다음 날 아침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때의 충격과 죄책감은 단순한 안타까움을 넘어, 기후 위기가 가장 먼저 누구의 삶을 덮치는지에 대한 아픈 깨달음으로 다가왔다. 그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 주택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3명이 끝내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반지하에서 1층까지는 너무 멀었고, 밖으로부터 가족을 지키기 위한 쇠창살은 안에서의 탈출을 막는 너무나도 굳건한 벽이 되었다. 이 비극은 단순한 안전사고가 아닌, 기후 위기와 사회 구조적 문제가 결합하여 발생한 명백한 ‘인권 재난’이었다.

신림동 반지하에서 발생한 참사의 피해자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를 가진 사회적 약자였다. 지상 주택보다 월세가 3배 이상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머물러야 했던 반지하 공간은 결국 그들의 생명권과 주거권을 앗아갔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

총>이 스크린 위에 그려냈던 가상의 수직적 공간의 비극이 현실에서 더욱 잔혹하게 재현된 것이었다. 이처럼 재난은 언제나 장애인, 노인, 아동과 같은 취약계층의 삶을 먼저 위협한다. 사회의 기반 시설과 재난 대응 시스템이 이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기후 재난이라는 거대한 물줄기는 사회의 가장 낮은 곳, 우리가 애써 외면했던 곳으로 흘러들었다. 이는 단지 빗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책임감,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 또한 아래로, 더 아래로 흘러보낸 우리의 무관심과 냉혹함이 그곳에 쌓여 터져 나온 흙탕물과 같은 결과는 아닐까. 작년 여름, 인도에서 친해져 서울로 교환학생을 온 내 친구 '카니슈카'가 우리집에 머물 때였다. 고향 뉴델리의 기록적인 폭우로 차가 떠내려갔다면 상심한 어머니와 오염하며 통화하던 친구의 모습은, 이 재난이 국경 없는 모두의 고통임을 절감하게 했다.

영화<돈 룩 업>의 주인공들은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혜성을 발견하고 필사적으로 위험을 알리지만, 사람들은 눈앞의 이익과 정치적 계산에 빠져 이를 외면하다 결국 파멸을 맞는다. 마치 카산드라의 비극처럼 말이다. 영화는 코미디의 형태를 빌렸지만, 작금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코미디를 가장한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듯 하다.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후 위기는 사기다'라며 객관적인 자료와 수치를 부정한다.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코끼리가 방 안을 모두 차지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서로 눈치를 보며 아무도 그 코끼리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림동의 비극은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가 외면하는 사이, 이 코끼리의 육중한 발에 가장 먼저 짓밟히는 것은 누구냐고 말이다. 기후 위기 대응은 더 이상 환경 보호라는 '권고'의 영역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약한 이웃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는 인권 수호의 '의무'로 이행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방 안의 코끼리를 똑바로 마주하고, 그 코끼리에 대해 이야기해야만 한다.

1. 이름: 서원준
2. 작품 제목: "침묵을 깨는 용기, 대학의 인권"
3. 작품 설명(요약)

작품 취지 및 창작 배경	작품을 통한 전달 메시지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과 작은 불평등 문제를 조명하며, 모든 학생이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고자 함 -학교 프로그램을 관찰하며 현실적 공감과 제도·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담았음	-모든 학생이 존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대학을 위해, 침묵을 깨고 서로 연대하며 공동체 역량을 키워 나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음

4. 출품작

침묵을 깨는 용기, 함께 만드는 안전한 대학.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그 출발점은 존엄과 안전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전당인 대학에서도 인권은 언제나 완전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학문과 자유의 공간이어야 할 캠퍼스가 오히려 성희롱, 성폭력, 권력형 인권침해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대학은 안전하다’는 안일한 인식 속에서 피해는 은폐되거나 침묵 속에 묻히곤 합니다. 인권침해는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대학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대학 내 인권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수와 학생 사이의 권력 불균형은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부적절한 언행, 성희롱적 발언, 성적 평가에서의 불이익 등은 학생들의 학업과 삶을 위협합니다. 또한 동아리나 학생회 등 학생 자치 공간에서도 위계적 분위기 속에서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내에서 근무하는 근로학생이나 계약직 교직원도 취약한 위치 때문에 인권침해를 겪고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학생으로서 직접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으로 부득이하게 수업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출석은 인정되었지만 **실시간 필기 및 작성 과제** 중심으로 진행되는 수업 때문에 진도를 따라가기 어려웠습니다. 그 결과 시험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곧 학습권의 차별로 이어졌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학생에게 제도적 배려가 있었다라면 겪지 않았을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인권침해는 거창한 사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 속 작은 불평등이 누적될 때, 그것 또한 인권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교를 떠나는 경우,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때 오히려 “별일 아니다”, “과민하다”라는 반응으로 2차 피해를 겪는 현실입니다. 신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보호 장치

가 미비할 경우, 피해자는 더욱 고립되고, 침묵하게 됩니다. 이 침묵은 대학 공동체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더 나은 공동체로 나아갈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미 인권센터, 행복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 보호와 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생들은 일상 속 작은 불평등이나 권리 침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학은 기존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동시에 캠퍼스 문화를 개선하여 모든 학생이 안전하게 학업과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은 단순히 제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학은 다양한 인권 교육과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고 연대 문화를 장려하고 있지만,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문화를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침묵을 강요하는 문화 대신, 목격자와 동료가 자연스럽게 피해자와 연대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은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공간이 아닙니다.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안전한 공간일 때, 비로소 학생들은 자유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대학은 결코 참된 교육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대학은 정말 안전한가?”라는 질문 말입니다.

침묵은 문제를 키우지만, 목소리는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침묵을 깨는 용기와 연대하는 힘이 모일 때, 대학은 진정한 인권의 터전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